

KEF 경총
KOREA
ENTERPRISES
FEDERATION

청년 구직자 취업 인식조사 결과

2022. 1.

< 조사개요 >

※ 「청년 구직자 취업 인식조사」는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20~34세 남녀 구직자 500명(응답자 기준)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(주)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.

< 요약 >

1.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희망분야는

「공공기관·공무원」 36.8%, 「대기업」 17.2%

- ▶ 그 외 응답은 '중견기업' 14.6%, '중소기업' 11.2%, '벤처·스타트업' 2.4%로 집계
- ▶ '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음'이라는 응답은 16.2%로 세 번째로 높았음.

2. 취업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「임금 및 복지수준」

- ▶ 취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'임금 및 복지수준'이라는 응답이 37.6%로 가장 높았고, 그 외 응답은 '고용안정성' 21.7%, '워라벨 및 기업 문화' 20.5%, '성장가능성 및 비전' 12.5% 순으로 집계
- ※ 희망하는 연봉 수준은 '3,000~4,000만원'이 39.6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3. 구직활동 시 가장 큰 어려움은 「기회 부족」과 「불안감」

- ▶ 구직활동 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'인턴십, 실무경험 등 기회 부족 (23.8%)'과 '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(23.4%)'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, 그 외 응답은 '취업준비 비용 등 경제적 부담' 19.8%, '어학점수 등 스펙 갖추기' 18.0%, '취업 관련 정보 획득' 14.2% 순으로 집계
- ※ 응답자의 47.4%는 희망기업에 취업이 안 될 경우 '하향 지원할 것'이라고 답변

4. 응답자의 74.6%, 민간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「참여 의향 있음」

- ▶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'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'라는 응답이 38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5. 응답자의 39.0%, 수시채용 확대는 「취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」

- ▶ 수시채용 확대가 취업에 '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'이라는 응답은 32.4%로 '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'이라는 응답(28.6%)보다 다소 높았음.
- ※ 수시채용 확대가 긍정적인 이유로는 '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어서' 40.1%, '준비해야 할 사항이 명확해서' 25.3%, '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 같아서' 19.1% 순으로 집계됨.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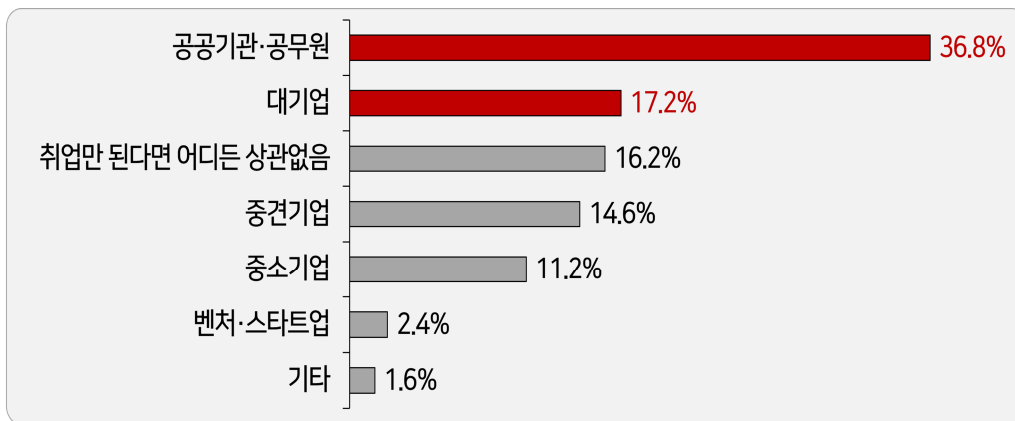
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희망분야는

「공공기관·공무원」 36.8%, 「대기업」 17.2%

※ 「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무관」이라는 응답은 16.2%

- 청년(20~34세) 구직자들에게 취업 희망분야를 조사한 결과, '공공기관·공무원'이라는 응답이 36.8%, '대기업'이라는 응답이 17.2%로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(54%) 차지
- 그 외 '중견기업'이라는 응답이 14.6%, '중소기업'이라는 응답은 11.2%, '벤처·스타트업'이라는 응답은 2.4%로 집계
- '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음'이라는 응답은 16.2%로 세 번째로 높았음.

< 그림 1. 취업 희망분야 >



- 연령에 관계없이 '공공기관·공무원'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.
- '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음'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.

< 표 1. 취업 희망분야 >

구분	전체	연령대		
		20~24세	25~29세	30~34세
공공기관·공무원	36.8%	37.8%	37.7%	35.4%
대기업	17.2%	20.3%	20.8%	11.8%
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음	16.2%	12.2%	14.3%	20.0%
중견기업	14.6%	10.8%	16.0%	14.4%
중소기업	11.2%	13.5%	7.8%	14.4%
벤처·스타트업	2.4%	4.1%	1.7%	2.6%
기타	1.6%	1.4%	1.7%	1.5%

2

취업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「임금 및 복지수준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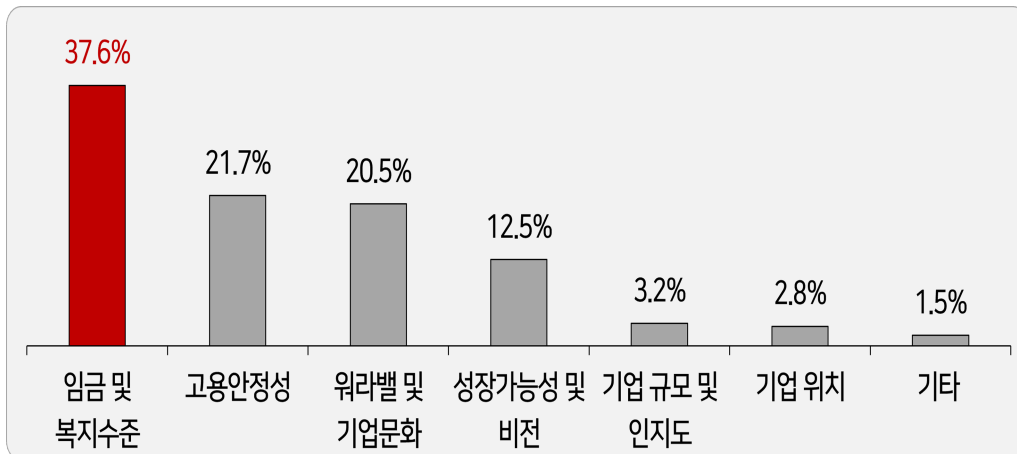
※ 응답자의 39.6%, 희망연봉은 「3,000~4,000만원」

□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, '임금 및 복지수준'이라는 응답이 37.6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○ 그 외 '고용안정성'이라는 응답이 21.7%, '워라벨 및 기업문화'라는 응답이 20.5%, '성장가능성 및 비전'이라는 응답이 12.5% 순으로 집계됨.

- '성장가능성'보다는 '임금 및 복지수준'이나 '고용안정성', '워라벨'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풀이됨.

< 그림 2. 취업 시 우선 고려사항 >



○ 연령에 관계없이 '임금 및 복지수준'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.

< 표 2. 취업 시 우선 고려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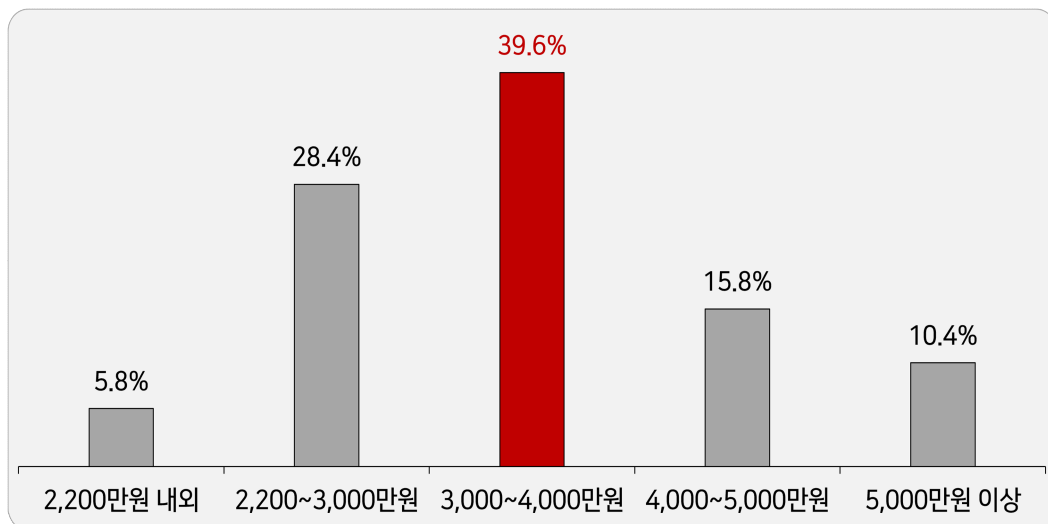
구분	연령			
	전체	20~24세	25~29세	30~34세
임금 및 복지수준	37.6%	39.7%	36.0%	40.1%
고용안정성	21.7%	11.0%	12.2%	13.6%
워라벨 및 기업문화	20.5%	18.5%	22.6%	22.8%
성장가능성 및 비전	12.5%	19.2%	22.2%	19.6%
기업 규모 및 인지도	3.2%	6.2%	4.3%	1.0%
기업 위치	2.8%	4.8%	2.3%	2.6%
기타	1.5%	0.7%	0.5%	0.3%

□ 청년 구직자들에게 희망하는 연간 임금*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39.6%가 '3,000~4,000만원'이라고 답변

* 성과금을 포함한 임금총액

- 그 외 '2,200~3,000만원'이라는 응답이 28.4%, '4,000~5,000만원'이라는 응답이 15.8%, '5,000만원 이상'이라는 응답이 10.4%, '2,200만원 내외 (최저임금 수준)'라는 응답이 5.8% 순으로 집계

< 그림 3. 희망하는 연간 임금 수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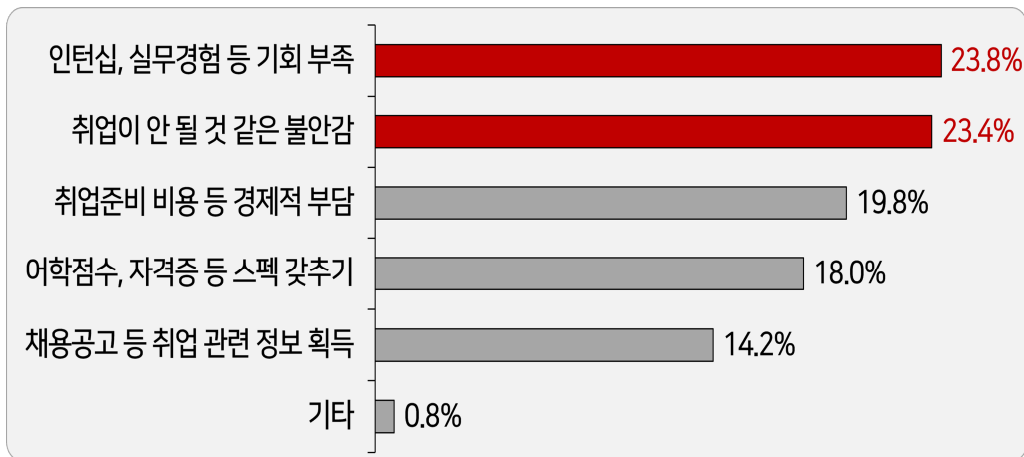
3

구직활동 시 가장 큰 어려움은 「기회 부족」과 「불안감」

※ 응답자의 47.4%, 희망기업에 취업이 안 될 경우 「하향 지원할 것」

- 청년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, '인턴십, 실무경험 등 기회 부족'이라는 응답이 23.8%, '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'이라는 응답이 23.4%로 나타남.
- 그 외 '취업준비 비용 등 경제적 부담'이라는 응답이 19.8%, '어학점수 등 스펙 갖추기'라는 응답이 18.0%, '취업 관련 정보 획득'이라는 응답이 14.2% 순으로 집계됨.

< 그림 4. 구직활동 시 가장 큰 어려움 >



- 청년 구직자들에게 희망기업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47.4%가 '눈높이를 낮춰 하향 지원하겠다'고 답변
- 그 외 '희망기업에 계속해서 지원하겠다'는 응답이 26.8%, '진학, 창업 등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겠다'는 응답이 13.4%, '생각해 본 적 없음'이라는 응답이 12.4% 순으로 집계

< 표 3.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>

구분	눈높이를 낮춰 하향 지원	희망기업에 계속 지원	진학, 창업 등 방향 전환	생각해 본 적 없음
응답률	47.4%	26.8%	13.4%	12.4%

4

응답자의 74.6%, 민간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「참여 의향 있음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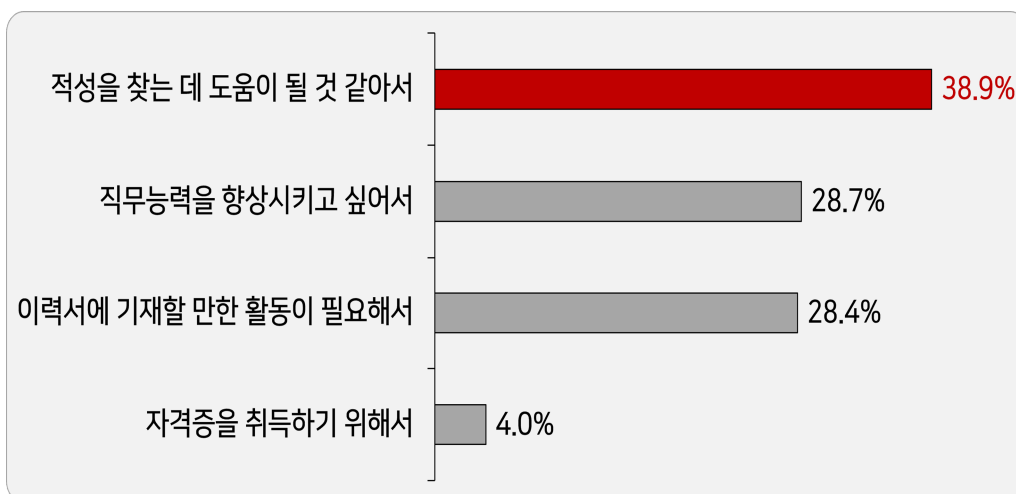
- 청년 구직자들에게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74.6%가 '참여 의향이 있다'고 답변
 - 연령별로는 25~29세의 참여 의향(89.7%)이 높게 나타났고, 20~24세의 참여 의향(63.5%)이 다소 낮게 나타남.

< 표 4. 민간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 >

구분	전체	20~24세	25~29세	30~34세
응답률	74.6%	63.5%	89.7%	77.4%

-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, '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'라는 응답이 38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 - 그 외 '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'라는 응답이 28.7%, '이력서에 기재할 만한 활동이 필요해서'라는 응답이 28.4%, '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'라는 응답이 4.0% 순으로 집계됨.

< 그림 5. 민간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 >



5

응답자의 39.0% 수시채용 확대는 「취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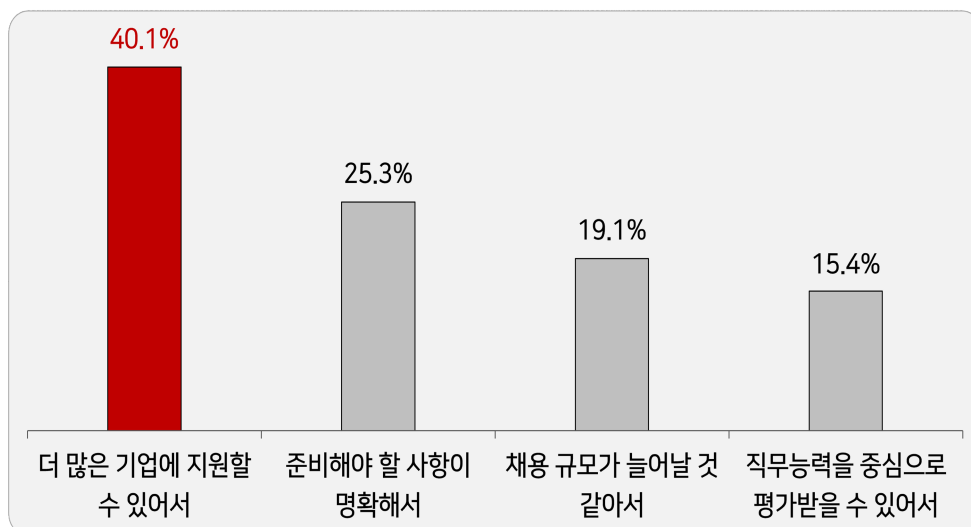
- 청년 구직자들에게 수시채용 확대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39.0%가 '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'이라고 답변
 - 수시채용 확대가 취업에 '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'이라는 응답이 32.4%로 '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'이라는 응답(28.6%)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.

< 표 5. 수시채용 확대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>

구분	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	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	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
응답률	32.4%	28.6%	39.0%

- 수시채용 확대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, '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어서'라는 응답이 40.1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 - 그 외 '준비해야 할 사항이 명확해서'라는 응답이 25.3%, '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 같아서'라는 응답이 19.1%, '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'라는 응답이 15.4% 순으로 집계됨.

< 그림 6. 수시채용 확대가 긍정적인 이유 >



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본 조사는 청년 구직자의 구직활동 상황 및 취업준비 실태를 파악·분석하여 향후 청년고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전국 20~34세 남녀 구직자 중 설문에 응답한 5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※ 조사수행기관 : (주)글로벌리서치

3. 조사기간 : 2021년 12월 2일 ~ 12월 8일

4. 조사방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음.

5. 주요 조사항목

- 취업 희망분야 및 고려사항, 구직활동 상황, 향후 계획 등
- 직업훈련 참여 의향, 수시채용 확대에 대한 인식 등

6. 응답자수

구분		응답자수
전체		500명 (100.0%)
연령별	20~24세	74명 (14.8%)
	25~29세	231명 (46.2%)
	30~34세	195명 (39.0%)